

작품 내용

제 목	Backspce를 누르세요.
내 용	“딩동댕동당~”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우리 릴스 찍자” 혜지가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서로 마주보며 말한다. “오키!” 지아가 요즘 유행하는 ‘버터떡 챌린지’ 노래를 틀었다. “그럼 필터는 이걸로 할..... 아, 유료네?! 저작권?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혜의 말에 지아와 혜지도 다혜의 스마트폰을 보았다. “그럼 챗gpt로 필터 골라서 릴스에 끼워.” “아 그럼 되겠네. 공짜면 다 좋아.” 다혜는 대답하며 챗지피티로 필터를 골라 릴스에 장착했다. “띠랑!” 현지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떴다.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현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누군가가 현지 님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현지는 인스타그램 필터를 제작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릴스를 찍어 올리는 500만 유튜버이면서 초등학교 필터 제작자이다. 그런데 현지의 눈앞에는 처음 보는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현지는 메시지를 보며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며 만든 필터에 대해 생각했다. 현지의 필터와 릴스는 모두 현지가 밤새워서 편집하고 제작한 소중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니, 현지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속이 상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며 현지가 말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누군가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지는 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옆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보았다. 남들보다 더 말수가 적은 현지. 현지는 외로웠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친구를 한두명 사귀까 말까였다. 집에서는 말할 사람이 없어 더 외로웠다. 아침저녁 회사 출근으로 일하기 바쁜 엄마,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는 술에 진탕 되어서 오는 아빠, 고등학생이 되어서 기숙 학교에 취직한 언니. 그래서 현지는 유튜버를 시작했다. 현지를 좋아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 이지만 가족 대신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 몇 명이 현지의 유일한 즐거움을 빼앗았다. 현지는 속이 타들어 간다는 것을 모르고. 현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좀 쉬기로 했다. 한참 뒤. 잠깐 눈을 뜨니 눈앞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병원이었다. 현지는 엄마와 눈을 마주쳤다. 갑자기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 엄마 왜 울어?, 나, 나는 왜 병원에 있는 거고?” 현지는 당황하며 엄

마에게 물었다.

울고 있는 엄마 대신 언니가 울먹이며 대답해 주었다. “너 반나절이나 안 깨어났어.”

그제야 현지는 모든 것이 기억이 났다. 현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 침대에서 정신을 잃은 일.

“엄마, 아빠, 근데 내가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현지가 물었다.

“학원에서 너 안 왔다고 연락이 왔지. 참, 그리고 현지 너 엄마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유튜버 했더라?! 너랑 필터 제작으로 계약한 회사가 네가 만든 필터 누가 무단 사용했다고 네 스마트폰으로 연락 왔어. 회사가 대신 소송 걸어준대.”

아빠가 말했다.

“그럼 내 작품 찾을 수 있는거네. 그런데 누가 그랬대?”

“@@초등학교 6학년 7반에 있는 여자애라던데. 이름이.....아! 이혜지, 박지아, 김다혜였어. 같은 초등학교니까 알 수도 있겠네.”

그 순간, 현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같은 반이야! 아빠는 딸이 몇 반인지도 몰랐어?!” 현지가 따지듯이 소리쳤다. 셋 다 놀라서 현지를 쳐다보았다. “아.....그게.....” 현지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현지를 꼭 안았다. 아빠도 언니도 차례로 현지를 안아주었다. 잠시 잠잠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건 엄마였다.

“우리 딸.....엄마 아빠가 챙겨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그래도 잘 지내워서 정말 고마워. 엄마로서 너무 부끄럽네. 앞으로는 우리 딸, 잘 챙겨줄게.....” 현지는 가만히 엄마의 품에 안겼다.

“오늘은 다 같이 외식할까? 우리 딸들, 고기 좋아하잖아.”

아빠가 말했다.

현지도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다.

“응! 삼겹살 먹으러 갈래!”

다음날, 하교 후 교실에서 현지는 가방을 싸는 다혜, 혜지, 지아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다혜와 혜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넷은 복도로 나갔다.

“저기, 그 너희 릴스 멋지더라”

현지가 말을 꺼냈다.

“응, 고마워. 근데 그거 말하려고 부른 거야?”

다혜가 대답했다.

“아니, 실은 너희 릴스의 필터, 내가 만든 거야. 너희가 내 필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힘들고 속상했어. 그래서 그 릴스는 삭제해줘.”

“아, 네가 만든 거였어? 잘 만들었다. 그리고 네가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그 영상은 꼭 삭제할게. 정말 미안해. 사과의 의미로 오늘은 내가 떡볶이 쓸게! 넷이서 먹으러 가자! 괜찮지? 애들아?” 다혜가 말했다.

	“좋아!” 혜지와 지아도 다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리쳤다. 넷은 깔깔 웃으며 분식점으로 향했다. 친구들과 같이 뛰어가며 현지는 생각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애네들은 진짜 멋진 친구들이구나.’
--	--